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 광양시, 쌀 소득보전직접 지불제 농지 토양검정 실시

### 적정 시비량 조정과 무분별 사용 경각심 고취



광양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1월 말까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검정을 실시한다.

이번 토양검정 대상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와 지난해 직불제 사업 시 토양검정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는 읍·면·동별로 토양 240점, 밭 20점 등 총 260점의 분석대상 필지를 선정하고,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등 3성분을 분석한다.

또 토양검정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촌진흥청의 표준분석법 기준합량과 비교해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농가에 통보할 계획이다. 토양검정 결과 2개성분 이상이

‘농지의 토양화학적분 기준합량에 포함되지 않은 농기는 비료사용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어, 다음해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허남일 식량작물팀장은 “이번 토양검정을 통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에 맞는 조치를 정확히 적용해 비료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며 “토양양분 함량에 따른 시비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지속적인 토양관리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쌀시장 개방에 따라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정부가 지원해오고 있는 보조금이다.

쌀 소득직접지불제 토양검정 사업 및 시비처방과 관련된 사항은 기술보급과 토양검정 담당자(☎061-797-3600)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나주시, ‘남평역’ 관광자원화 착수

나주시는 전남도 지정문화재 제 299호로 지정된 무정차 기차역(폐역)인 남평역을 옛 정취를 불러일으키는 관광 명소로 조성한다.

시는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와 남평역 관광자원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남평역의 온전한 보존을 골자로 철도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에 협력해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나주시가 지난 2015년 추진한 ‘농촌유역권 녹색벨트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에서 남평역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남평역의 지속적인 관리 방안 수립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관광 명소 개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는 향후 5년 간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남평역사 일원을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사업비 2억3천만 원을 투입 2023년까지 역사 및 광장 부지에 철도문화관, 근대정원, 쉼터, 문화공방 등을 조성한다.

## 순천 푸드·아트 페스티벌 부스 운영자 모집



순천시는 2018 순천 푸드·아트 페스티벌을 오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중앙사거리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축제기간에는 ‘아트마켓 부스운영자 66개팀을 모집하여 다양한 예술작품의 판매 및 전시를 통해 순천의 ‘아트’를 표현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순천 창작예술촌인 조강훈 아트 스튜디오와 연계한 미술장터를 마련하여 재능 있는 지역작가를 발굴한다.

미술작품 전시·판매는 지역민

들에게 수준 높은 작품을 체험하고, 소장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참가대상은 아트부문(3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공고는 오는 8월 3일까지로 순천시청 홈페이지(<http://suncheon.go.kr>) 일반공고란에서 볼 수 있으며 자체심사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보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2018순천 푸드·아트페스티벌 아트마켓 부스운영자 공개모집은 음식과 더불어 축제의 주요 컨셉으로 지역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아트마켓운영에 관심 있는 시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김종영 기자

## 광양시,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 오는 27일까지 접수

광양시는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인턴이나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해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참여할 기업의 자격으로는 광양에 소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청년을 인턴으로 선발하거나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인턴채용 후 정규직 전환 채용계획이 있어야 한다.

사업규모는 1년차 8명, 2년차 7명, 3년차 10명 등 총 25명으로 지원

원금은 1년차부터 3년차까지 나눠 지며, 근로자 1명당 최대 1,200만 원이 지원된다.

우선 1년차 취업장려금으로 정규직 전환 이후 3개월간 청년에게 50만 원씩, 기업에게 60만5천 원씩 총 350만 원이 지급된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은 채용 후 2달부터 3개월간 지급된다.

2년차 고용유지금으로는 분기별로 청년과 기업에게 각각 37만 5천 원씩 총 300만 원이 지원되며, 3년차 장기근속금은 분기별로 청년에게 100만 원씩, 기업에게 37만 5천 원씩 총 550만 원이 지급된다.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27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고 시청 투자일자리담당관실 일자리사업팀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각 기업에서 제출한 신청서류를 고용보험 가입과 체납 여부 등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오는 8월 3일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이정희 투자일자리담당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정규직 일자리 취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들이 지역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전화(☎061-797-2945)로 연락하면 된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순천국유림-광양세관, 불법수입 목재제품 합동 단속

### 목재 펠릿·목탄류 대상 시료 채취 전문 검사기관 의뢰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광양세관과 함께 보세구역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의 중점 단속대상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 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이다.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

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목탄류는 대부분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합동 단속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단속하며 제

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난 2016년부터 관세청과 실시한 합동단속이 소기의 성과를 이룬 만큼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목재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 화순군,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

### 농기계 점검·수리 및 자가 정비 교육 실시



화순군은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20회에 걸쳐 하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한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처하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다.

특히 교통 사정 등으로 고장난 농기계의 수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지마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 기종은 관리기, 예취기 등이며, 부품비용은 1만원 이하는 무료이고 1만원 초과 시에 부품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한편, 농기계 점검·수리와 함께 가정에서 쉽게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자가정비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장이 참여하여 비·고추 등 당면한 영농 사항에 관한 상담도 실시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수리가 곤란한 농기계 수리에 중점을 두고 적기 영농 실현 및 경영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061-379-5464)에게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 친환경 천연 창성찬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취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

**장성군**

장성군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